

“종단차원 찬불가 보급 방안 마련하겠다”

법장 스님, 운문 스님 예방 받고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법장 스님은 지난해 11월 23일 운문 스님의 예방을 받고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403곡의 찬불가를 새롭게 만든 것은 위대한 봉사”라고 운문 스님을 격려했으며, 운문 스님은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불자들에게 찬불가를 보급하고 싶다”며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도 “아직도 찬불가의 보급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 사부대중에게 찬불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불교음악협회는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3권을 간행한 바 있다.

신도용 찬불가 편찬과정

안병길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은 전국에 있는 찬불가를 모아서 집대성하여 총 8권으로 1993년 10월에 출간하였고 뒤이어 합창곡 집 1권을 1996년에 출간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을 위한 찬불가가 없어 얼마마다 복사하여 사용하고 법오집에 항상 삼입되는 것을 보고 단행본의 찬불가를 편찬해

찬불가 모아 총8권으로 집대성

아겠다고 생각하여 1998년부터 준비하여 2002년 4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찬불가의 출간의 의의는 1) 복사를 하지 말고, 2) 많은 곡들을 신도들에게 보급하고, 3) 전국이 하나 되는 무인인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4) 편찬방법은 일러두기와 제목분류에 있다.

일러두기

이런 찬불가 편찬 불사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민족과 불교 정통성에 부합하는 곡의 선정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그동안 수집된 1300여 곡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 선별에 제한된 곡
 - 1) 신도용을 감안, 어렵고 전문적인 곡과 불교정서에 적합치 못한 곡, 2) 외국곡을 포함하여 표절시비가 될 수 있는 곡, 3) 동요 등의 너무 단순한 곡이나 사가 등과 같은 단일성 행사 위주의 곡, 4) 음역이 너무 넓거나 곡의 길이가 너무 긴 곡.
- 선별에 우선된 곡
 - 1) 범 불교적인 찬불가, 즉 종단을 초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 2)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불교 음악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곡, 3) 현재 각 사찰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곡, 4)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의식에 필요한 곡.

편집방향

- 1) 내용 찾기의 편의를 위해 곡의 순번을 상단 좌우에 적고, 쪽 수를 쓰지 않았다.
- 2) 곡의 빠르기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필요한 곡에는 메트로놈 숫자를 사용하였다.
- 3) 찬불가의 분류는 불교의 사상적 신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으로만 분류하고 용도별(법회·순례)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 4) 가사는 가능한 한 원형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 5) 가사의 편의를 위해 신도용과 반주용의 곡 순서를 일치시켰다.

위와 같은 기본 방침을 준수하면서 편찬위원회는 일반 신도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 300곡을 선별하고,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신앙의 조직화와 실용성을 기하였다.

합창곡 편찬과정

합창곡이란 여러 목소리가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불교합창단은 제창을 합창단이 부른 합창이라고 생각하면 서 지내었다. 불교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1세기가 넘어갔다. 10년이던 강산이 변한 다음에 우리 불교합창단도 1973년부터 합창단이 조직되어져 왔는데 지금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 변화하는 동안 찬불가는 그 다지 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고민하던 중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의 이사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창곡집의 출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많은 합창곡집이 출간되었으나 이번의 찬불가의 특징은 각

수평·수직회음 합성 편집, 철저한 감수

자의 선율을 각자의 기등으로 표시하였고 수평화성과 수직적인화성을 고려하고 두 가지를 합성하여 편집 되어졌다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음악계의 감수는 물론이고 불교음악계 외의 분 들도 감수 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래에는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교계의 탄생을 불교 음악의 밝은 미래를 여는 것이다. 합창곡은 종단을 초월하여 제작되었고 전국의 지도자들의 일치감치로 편찬되었으며 합창단의 염원으로 출간 되어졌다가 것이 이번 합창곡의 출간 된 의의라고 생각한다.

일러두기

이번 찬불가 합창곡집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민족과 불교 정통성에 부합하는 곡의 선정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그동안 수집된 2000여 곡 중에서 403곡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곡하였다. 200여 곡은 제4권으로 출간 예정이다.

- 선별에 제한된 곡
 - 1) 내용이 있어서 불교적 정서에 적합하지 못한 곡이나 특창곡, 2) 외국곡을 포함하여 표절시비가 있는 곡, 3) 동요 등의 너무 단순한 곡이나 사가 등과 같은 행사 위주의 곡, 4) 음역이 너무 낮고, 곡의 길이가 짧거나 너무 긴 곡.

선별에 우선된 곡

- 1) 범 불교적으로 된 합창곡, 즉 종단을 초월한 내용으로 작곡된 곡, 2) 합창단이 부를 수 있고 불교 음악으로 품위가 있는 곡, 3) 현재 각 사찰에서 많이 불려지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곡, 4)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곡.

편집방향

- 1) 내용 찾기의 편의를 위해 곡의 순번을 상단 좌우에 적고, 한 단 좌우에는 쪽 수를 썼다.
 - 2) 곡의 빠르기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필요한 곡에는 메트로놈 숫자를 사용하였다.
 - 3) 찬불가의 분류는 불교의 사상적, 신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만으로 분류하고 용도별(법회·순례)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 4) 가사는 가능한 한 원형 맞춤법에 따라 수정 하였다.
- 위와 같은 기본 방침을 준수하여 합창단이 즐겁게 음성공양을 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고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신앙의 조직화와 실용성을 기하였다.

운문 스님 인터뷰

英·中·日어로도 찬불가집 펴낼터



“불교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면 내 노래가 안 불려지는 데가 없어요. 큰 사찰에 주지 한 번 못 해봤지만 요즘 외사 생각하니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문 스님 새해 초 서울 삼각산 구기동에서 만난 운문 스님(사 진)의 얼굴에는 일평생 바쳐온 찬불가 보급 운동에 대한 자긍심이 대담했다. 여든을 바라보지만 스님은 오즈음에도 이따금씩 방안에 놓여진 건반악기를 두드리며 찬불가를 작곡한다. “우리의 불교음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불가집을 영어와 중국어 및 일본어에도 번역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찬불가집을 반드시 살아생전에 집대성할 것입니다. 물론 합창용 찬불가 제 4권도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남은 여생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올해 삼보불교음악회권 건립 불사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피력했다.

글= 김주일기자·사진=고영배기자

운문 스님 작사 주요곡

누가 예불가 / 보현행원 / 사홍서원 / 심화가 / 중도회가 / 지장 보살의 서원 / 진달래 / 진리의 행진곡 / 진리의 행진곡 / 진혼가 / 집회가 / 착착착 / 착한 어린이 / 찬양합니다 / 찬불가 / 천수경 / 천수경 / 청법가 / 추서 / 칠불 아자방 / 칠불백중 / 탄생하심 / 태자님과 꽃동산 / 품에 안아주소서 / 풍선놀이 / 하얀 구름 / 검은 구름 하얀 눈 / 학생회가 / 한국 관음회 회가 / 향마가 / 해바라기 / 해인사 풍경소리 / 행복을 주시옵소서 / 행복의 문

운문 스님 약력

- 1944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망월사에서 박인국 대와상을 은사로 득도
- 1953년 3월 15일 경남 합천군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에서 대교과 수료
- 1956년 7월 10일 전남 여수 흥국사 주지 취임
- 1959년 8월 2일 경남 진주시 연화사 주지 취임
- 1962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취임
- 1963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피선
- 1966년 5월 28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 1968년 5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보상 수상
- 1971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취임
- 1972년 6월 13일 서울 회기중학교 사주 취임
- 1975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운문사 창건
- 1983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보상 수상
- 1985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 1985년 12월 31일 어린이 찬불가 펴냄
- 1987년 1월 8일 제 1회 포교 대상(공로상) 수상
- 1990년 2월 11일 제 3회 포교대상(본상) 수상
- 1997년 10월 5일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취임
- 2000년 1월 29일 불교음악 40년 새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 불행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 총재 및 이사장 취임
- 2001년 2월 23일 오페라 ‘아미타불’ 제주도에서 공연
- 2002년 4월 11일 신도용과 반주용<찬불가집> 발간 기념 및 제1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 2002년 12월 7일 제 2회 부산 삼광사서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 2003년 4월 9일 정부교수 불교음악 CD ‘다시 나를 바라보며’ 출간 기념 음악회 개최
- 2003년 9월 27일 제3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 2004년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합창곡집 1,2,3권 발간 기념 및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사삼보불교음악회관 불사계획

운문 스님은 1928년 12월 5일 태어나서 많은 사람과 불교계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1975년 3월 1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운문사에 암자를 마련하시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다. 23년은 운문사의 주지로 소임 하시다가 1998년 주지 직을 태연스님에게 인계하고 회주로서 운문사에 거주하신다. 평생 불교음악에 헌신하신 운문스님께서 1998년 한국 불교음악협회에 기증하시면서 스님의 원력과 불교음악인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전당을 건립하여 불교음악의 전문성, 대중화, 저변확대를 통한 불교도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운문스님의 원력은 대단한 것 같다. 불교음악을 시작하신지 48년 만에 찬불가의 집대성, 신도용찬불가원성, 합창곡 편찬 등 찬불가의 신기원을 만드신 것이다. 스님의 서원이 한 가지 남아있지만 그 서원은 이루어질 것 같다. 마지막 남은 불교음악회관이 세워져 많은 불교음악인들과 불자들의 정신적인 전당을 만들고 있다. 스님께서 1975년에 만들어놓으신 자리에 2005년 6월 1일에 한다.

‘전문성·대중화·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공식을 할 예정이다. 30년 만에 스님의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문사의 건립은 모든 사람들의 정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특히 불교음악의 지도자, 합창단원이 중심이 되어 불교음악의 회관을 세우고자 한다. 사삼보불교음악회관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불교음악인들 것이고 넓게는 불교인들의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것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음악회관을 건립하여 모두가 공동 관리하여 불교음악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듯이 불교음악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 미래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산은 산으로서 남겨주고 물은 물로서 존재하여야 하듯이 불교음악은 불교음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음악회관 건립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명칭 : 사삼보불교음악회관
- 기공일 : 2005년 6월 1일
- 준공일 : 2006년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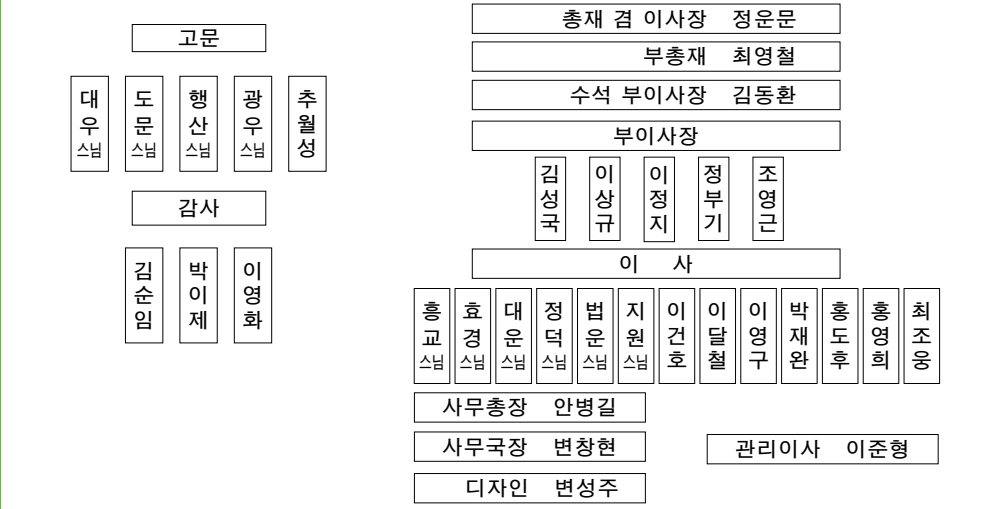
층별	면적	용도
지하2층	330㎡(100평)	주차장
지하1층	330㎡(100평)	회관
지상1층	100㎡(30평)~148㎡(45평)	총무소 및 식당
지상2층	100㎡(30평)~148㎡(45평)	요사채
지상3층	100㎡(30평)~148㎡(45평)	법당
합계	960㎡(290평)~1104㎡(334평)	

구분	내용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03-6호의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490㎡(148평)
건축면적	144.56㎡(44평)
건폐율	29.50%
연면적	676.27㎡
용적률	88.51%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주차대수	육내 6대



조감도

삼보불교음악협회 조직표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소개

연월	주요사업	장소	주요인사
1991년 1월 10일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회 발족	초대회장 : 반영규	2000년 4월 12일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념연회" 개최 및 "지도자 합창단" 구성
1991년 4월 20일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회 발족	장소 : 호암아트홀	장소 : 문화관광부
1992년 11월 7일	불교음악의대행인 "뜻의 노래" 공연	장소 : 예술의전당	2000년 12월 19일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 창립
1993년 5월 25일	"뜻의 노래" 앙코르 공연	장소 : KBS홀	2001년 12월 12일 제1회 전국연합창단 한마당 축제 개최
1993년 10월 30일	"찬불가 전집" 전 8권 출간	장소 : 세종홀	2002년 4월 11일 찬불가(신도용) 출간기념회
1993년 11월 13일	"불교음악의 대행인" 공연	장소 : KBS홀	2002년 4월 11일 찬불가(신도용) 출간기념음악회
1994년 3월 25일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회에서 한국불교음악연구회로 개칭		
1994년 11월 5일	예술 한국음악협회 선려단체로 등록	2대 회장 : 정무원	2002년 12월 7일 제2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1996년 3월 17일	"찬불가 합창곡집" 출판 및 기념음악회	장소 : 예술의전당	2003년 9월 27일 제3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1999년 9월	한국불교음악연구회에서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개칭 결의	장소 : 한국불교음악협회	
1999년 10월 19일	운문 스님의 불교음악 45년 오페라 "아미타불", "새로운 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 대강당 개최 및 "한국불교음악협회"의 창립을 선포	장소 : 세종문화회관	2004년 10월 13일 찬불가(합창곡집)출판 기념 및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2000년 1월 29일	"한국불교음악협회"의 기공을 위한 음악회" 개최	장소 : 힐튼호텔	2004년 11월 23일 운문스님과 법장스님대담
2002년 3월 15일	운문스님에게 대각사 문준제사인 운문사를 설립하게 기증하심	장소 : 대각사	2005년 6월 1일 사삼보불교음악회 역사적인 기공식 예정
			2005년 9월 1일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2005년 10월 15일 국악관현악을 위한 오페라 "아유다리와 아난다의 고백" 대강당

사삼보불교음악협회 발자취

구적으로 전해 배파의 전통적 불교음악에서 시작적인 발표와 음표를 통하여 사보화한 현대 불교음악의 효시를 1920년대 초반 때 1950년 중반부터 불교음악이 중흥했고, 1970년대에는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합창단 조직을 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불교음악 교사가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교는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교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불교음악교육을 위한 전문교과가 탄생한다. 위와 같이 시대적인 흐름을 통하여 진행되어온 불교음악의 올바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몇몇 뜻있는 음악인들이 1970년대 말부터 호암아트홀에서의 불교명상음악회와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였다. 이때에 집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정무원교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음악회를 주관한 능선원합창단 단장 권능인행씨가 연주회를 기획했다. 이후 이 노래들을 지구로코드사에서 테이프와 CD로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후 2004년 10월 13일에는 그동안 불교음악으로 사용되어오던 1,500여곡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500여곡을 수집하여 2000여 곡 중 600여 곡을 선별하여 찬불가 편찬위원회의 감수와 편곡을 거쳐 음악사서로 편집되어 출간되었다. 편집과정에서 600곡 중 403곡으로 압축하여 합창곡 1·2·3·4권으로 출간하려 하였으나 먼저 1·2·3권만 먼저출판하고 4권은 나중에 감수를 거쳐 출판할 예정이다.

전국 13개 지회·연합창단 구성, 연내에 불교음악회관 설립

터 불교음악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중 다시 1991년 1월 10일 이근호, 박정희, 이태호, 반영규, 정무기, 안병길 선생을 중심으로 그 뜻을 모으고 불교계 원로이었던 반영규 선생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회를 발족시켜 불교음악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고 전국불교음악제를 통하여 전국을 13개 지회와 전국연합창단으로 구성하고, 1,000여곡을 집대성해 찬불가전집을 출간하고, 1,000곡을 수집하여 총2,000여 곡중에서 신도용 찬불가와 합창곡집을 편찬하고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교도를 만들기 위하여 한걸음 걸이는 불교음악인들의 모임이 바로 사삼보불교음악협회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에 걸음은 발자취를 생각하여버리면 초기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회는 당시 안병길지회자가 많고 있었던 능선원연합창단과 경국사합창단을 중심으로 1991년 4월 20일

특히 이번 찬불가 합창곡집은 모든 종단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공양하고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곡으로써 불교 합창단의 고과서가 될 수 있도록 편찬했다. 신도용과 합창용 찬불가집의 완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찬불가가 집대성 되었으니 이아말로 2천만 불자의 신명생명의 신심고취와 통일성, 현대화를 불한 모든 이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포교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법장스님께서도 불교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본 협회의 총비자회 총회로 취임하였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제4회 전국 불교음악제가 2004년 10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사삼보불교음악회와 서울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설 서울불교 연합합창단, 전국불교연합창단의 주관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과 협연으로 전국의 합창단이 하나가된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를 열고 합창곡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고백식을 가졌다.